

# 2024년 3월 소비자 실무 위원회 결과 보고서

- 일 시 : 2024년 3월 14일 ~ 15일
- 참 석 : GS SHOP 고객 9명, GS SHOP 임직원 6명
- 안 건 : GS SHOP 55-69 고객 라이프 스타일 및 리빙 카테고리 상품 쇼핑 행태 파악



## 55-69 고객 라이프스타일 및 쇼핑 행태

### 1. 물건들을 소소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며 느끼는 뿌듯함

- 다양한 수납함에 물건들이 너저분하지 않게 모두 넣어둔다.
- 본인만의 살림 팁으로 쓰기 편하도록 소분/정리한다.

“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. 깔끔하게 다 싹 넣어버리니까 너무 집이 깔끔한 거예요.”

“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. 깔끔하게 다 싹 넣어버리니까 너무 집이 깔끔한 거예요.”

### 2.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살림의 변화

- Life Stage와 관심사가 달라지며, 살림에 쏟는 노력이 줄었다.
- 자녀 출가 등 살림 규모가 작아지며, 집에 빈 공간들이 생긴다.

“차라리 로봇 청소기를 한번 사볼까 생각해요. 모임 어디 나갈 때 그거 딱 들어놓고 나가면, 그나마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”

“지금 방이 다 비었으니까 우리 큰아 이 딸들 육아용품 안 쓰는 거 이 방에 다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거든요.”

### 3. 아직 나는 건강해, 하지만 손 힘을 쓰는 상황에서의 불편

- 건강이상 징후는 아직이지만, 본인 부모를 보며 고민이 시작됨.
- 힘을 써야 하는 순간(무거운 물건, 손으로 쥐어 짜고 등)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다.

“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렇게 나이 들면 안 되는데.. 그래서 저도 이제 근력이 내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다.”

“나물 같은 거 요리할 때, 재료들을 짜야 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힘들어 몸도 아껴야 돼서 안 짜려고..”

### 4. 주관은 바뀌지 않고, 새로운 유행은 좇고 싶다

- 살림법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.
- 익숙한 건 바꾸지 않지만, 새로운 니즈 제안에는 호한다.

“유리(보관용기)가 좋아요. 유리가 더 안전한 느낌. 음식이 플라스틱에 들어가면 별로. 요즘은 유리 제품 너무 잘 나와서 다 버리고 거의 유리 써요.”

“요즘 홈쇼핑 보면 에어프라이어 바꾸니까 유리로 딱 돼 있더라고요. 씻기도 좋을 것 같고, 음식이 익어가는 게 보여서 사고 싶어요.”